

草家は 塔는데 住宅文化는

金 榮 洙

종합건축사사무소 建築園

요즘 도시에서는 초가집을 구경할 수가 없다. 그야말로 깊은 시골이 아니면 찾기도 힘든 일이다. 고속도로나 국도변의 집들은 대부분이 울긋 불긋한 스텔트 지붕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제주도까지도 육지를 꼭 닳고 있다. 민속촌이나 섬의 민속마을을 찾는 것이 구경의 지름길처럼 되어버렸다.

보릿고개와 더불어 초가집은 대대로 이어온 가난의 상징이었기에, 살기가 조금 나아지던 박대통령시절, 새마을운동과 함께 대부분의 지붕이 스텔트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주택문화가 왜곡되고 오도되는 시련과 충격의 걸음마가 시작된 것이다.

이조때 계층에 따라 집의 구조와 규모가 달라야만 했던 왕권시대도 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도 행정의 시행착오는 문화의 흐름까지 막아 놓거나 또 바꾸어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였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흘러가는 것이 강물이듯이, 문화 또한 강물처럼 제갈길을 따라 가는 것, 흐르는 강물을 보지 못하고 겨울강위의 얼음만 보는 행정의 과오가 조금 지나쳤다고나 할까.

수천년 이어져온 민족의 생활감정과 주거의식을 하루아침의 물리적 작용으로 그것도 설익은 전시행정으로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어두고 엮어매는 관제의 예는 그 수가 너무나도 많다.

많은 규제 가운데서도 주택문화에는 특기할만한 금지사항이 하나 있다. 대지 250평, 연면적 150평 이상의 주택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갖가지 부정적 측면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상응하는 조건아래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쪽

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본다.

문화행정의 수준을 높이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주택문화를 우리의 세대에서도 향유하고, 또 후세에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문화가치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집에서는 생활을 못해본 무경험세대, 소정평수이상의 마당은 구경도 못해본 문화의 망각세대, 정말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 선조들도 다 있었다고 욕할지도 모를 후대들이다.

그건 그렇고 또 한가지 웃지 못할 예를 들어 보자.

다름아닌 주택에서의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넌센스.

건축사법에서는 준공검사자지 감리자는 아니라고 슬쩍 비껴갔지만, 지정 감리자가 사실상 허가이후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책임지고 있는게 현재의 실정이다.

위법주택의 해소라는 교육지책을 핑계 삼아 하나의 작품에 다른 두 건축사가 게재되는 창작의 몰이해 풍토는 그 어떤 언어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건축행위를 허가나 준공따위의 단순행정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예술과 문화라는 상위개념의 문화행정임을 앞질러 보았다면, 이런 종류의 요법은 심사숙고되었어야 옳을 일이다.

과분한 탓인지 모르지만 어느때 어느 곳에서 이런 시대적 착오가 있었는지, 또 창작의 포기과 간섭이 타의에 따라 이렇게 무질서하게 난무할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주택문화에 대한 의구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변에는 다세대주택이 주택의 위계질서를 통채로 뒤흔들어 버리고 말 것 같다.

가뜩이나 승승장구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틈바구니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했

던 단독주택이었는데, 아예 공동주택으로 천하통일이라도 하려는 듯한 사회일각의 분위기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불경기라는 불청객까지 끼여들어 소형 다세대주택으로 돌파구를 열어 보려는 움직임 때문에, 많은 수의 단독주택자가 다세대주택으로 매워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음도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무수한 생업들이 행정처분을 받아가면서 절대 금기시 되어 왔던 미니층과 옥외계단, 이제는 다세대주택이라는 합법의 탈을 쓰고 주택문화를 마구 유린하게 될지도 너무나 쉽게 예견되는 일이다.

누가 뭐래도 주거의 최적조건과 환경여건은 단독주택에서 찾아져야 하는 것, 주택문화의 진정한 이상 또한 여기에서 구하지 않으면 안될 일임에도, 단독주택의 보호보다는 다세대주택의 두둔같이 앞일이 격정스러워 지는 것이다.

말을 줄여 한가지 분명한것은 역사의 수레바퀴가 후진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우리의 주택문화도 그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후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할 한가지 엄연한 사실이 있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고 초가삼칸 태운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생각해 보면 더욱 자명해지듯이, 지금까지의 반문화적 요소들이 바로 빈대잡이식 초가태우기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위화감이나 위법때문에 거대한 주택문화를 표류시키거나 역류시키는 어리석음을 다시 저질러서는 물론 안되겠지만, 앞서 지적된 몇가지 어리석음 만이라도 초가가 다 타기 전에 불을 끄고 바로 잡는 큰 반성과 시정을 서둘러야 할때가 바로 지금이다.

다시한번 우리의 주택문화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7월호의 "건축원"을 建築園으로 정정합니다)